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억양 실현 양상 연구
-의문문의 문말 억양을 중심으로-



2015년 2월

부 경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왕 영 준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억양 실현 양상 연구
-의문문의 문말 억양을 중심으로-

지도 교수 권 성 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 경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왕 영 준

왕영준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주심 언어학박사 김희섭 (인)

위 원 문학박사 채영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권성미 (인)

<목 차>

Abstract	vii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4
1.3 연구 범위	8
II. 이론적 배경	9
2.1 한국어 억양의 특징	9
2.2 경상도 방언 억양의 특징	18
2.3 중국어 억양의 특징	22
III. 실험	26
3.1 실험 목적	26
3.2 실험 대상	26
3.3 실험 문장	29
3.4 실험 절차	32
IV. 실험 결과 분석	33
4.1 설명의문문 분석 결과	33
4.2 판정의문문 분석 결과	54
V. 결론	74

참고 문헌	76
국문 초록	81



<그림 차례>

[그림1] 이호영(1996)에서 제시한 한국어 억양 체계·····	10
[그림2] 한국어 운율 단위의 계층 구조(JUN,2000)·····	15
[그림3] 억양구 경계 성조 유형(JUN, 2000)·····	17
[그림4] 표준어 "학교에 갔어"의 평서문 & 의문문 ·····	20
[그림5] "학교에 가다"의 경상도 방언 억양·····	20
[그림6] Q1:언제 한국에 왔어?(SK1)·····	33
[그림7]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SK1)·····	34
[그림8] 누구한테 배웠어? (SK1)·····	34
[그림9] 언제 한국에 왔어? (BK1)·····	35
[그림10]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BK1)·····	36
[그림11] 누구한테 배웠노? (BK1)·····	36
[그림6-1] 언제 한국에 왔어? (CF1)·····	38
[그림6-2] 언제 한국에 왔어? (CF2)·····	38
[그림7-1]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CF1) ·····	40
[그림7-2]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CF2)·····	40
[그림8-1] 누구한테 배웠어? (CF1)·····	42
[그림8-2] 누구한테 배웠어? (CF2)·····	42
[그림9-1] 언제 한국에 왔노? (CF1)·····	44
[그림9-2] 언제 한국에 왔노? (CF2)·····	44
[그림10-1]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CF1)·····	46
[그림10-2]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CF2)·····	46
[그림11-1] 누구한테 배웠노? (CF1)·····	48
[그림11-2] 누구한테 배웠노? (CF2)·····	48

[그림12]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SK1).....	54
[그림13] 언니 내일 시간 있어? (SK1).....	54
[그림14] 언니 같이 갈래? (SK1).....	55
[그림15]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BK1).....	56
[그림16] 내일 시간 있나? (BK1).....	56
[그림17] 언니 같이 갈래? (BK1).....	56
[그림12-1]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CF1).....	58
[그림12-2]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CF2).....	58
[그림13-1] 내일 시간 있어? (CF1).....	60
[그림13-2] 내일 시간 있어? (CF2).....	60
[그림14-1] 언니 같이 갈래? (CF1).....	62
[그림14-2] 언니 같이 갈래? (CF2).....	62
[그림15-1]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CF1).....	64
[그림15-2]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CF2).....	64
[그림16-1] 내일 시간 있나? (CF1).....	66
[그림16-2] 내일 시간 있나? (CF2).....	66
[그림17-1] 언니 같이 갈래? (CF1).....	68
[그림17-2] 언니 같이 갈래? (CF2).....	68

〈표 차례〉

<표1> 한국어 핵억양 분류표(이호영 1996).....	12
<표2> Jun(2000)억양구 경계성조 유형이 실현되는 발화의 예.....	16
<표3> 한국인 피험자.....	27
<표4> 중국 여성 결혼 이민자 피험자.....	28
<표5> 서울 표준어 화자 설명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34
<표6> 경상도 방언 화자 설명의문문 문말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36
<표7> "언제 한국에 왔어?"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38
<표8>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의 억양 실현 결과표.....	40
<표9> "누구한테 배웠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결과.....	42
<표10> "언제 한국에 왔노?"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44
<표11>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46
<표12> "누구한테 배웠노?"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48
<표13> "언제 한국에 왔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50
<표14>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표.....	50
<표15> "누구한테 배웠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51
<표16> "언제 한국에 왔노?"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51
<표17>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표.....	52
<표18> "누구한테 배웠노?"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52
<표19> 서울 표준어 화자 판정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55
<표20> 경상도 방언 화자 판정의문문 문말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57
<표21>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58
<표22> "내일 시간 있어?"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60

<표23> "언니 같이 갈래?"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62
<표24> "김치찌개 만들 수 있냐?"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64
<표25> "내일 시간 있나?"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66
<표26> "언니 같이 갈래?"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68
<표27>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70
<표28> "내일 시간 있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70
<표29> "언니 같이 갈래?"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71
<표30> "김치찌개 만들 수 있냐?"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71
<표31> "내일 시간 있나?"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72
<표32> "언니 같이 갈래?"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72



Korean accent realization study aspects of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Busan
- Munmal accent around the question-

Wang Yongzhu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Sungm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lluminated whether Chinese women married immigrants are affected by the Gyeongsang dialect intonation in process of Korean learning by analyzing intonation in acoustic phonetics when they utter Korean.

The ideal goal in language learning will reach the level of a native speaker. Women married immigrants in Korea have outstanding language ability more than the others who have different purposes in learning Korean language.

This study recorded and analyzed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sentence of groups of three who are speakers of Korean standard language and Gyeongsang dialect to compare their interrogative sentence intonation.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alization aspects of Korean standard language and Gyeongsang dialect. Specifically, I recorded a Korean utterance and measured pitch of the basic features of the speech sound.

Chapter 1 reveal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research through looking at the preceding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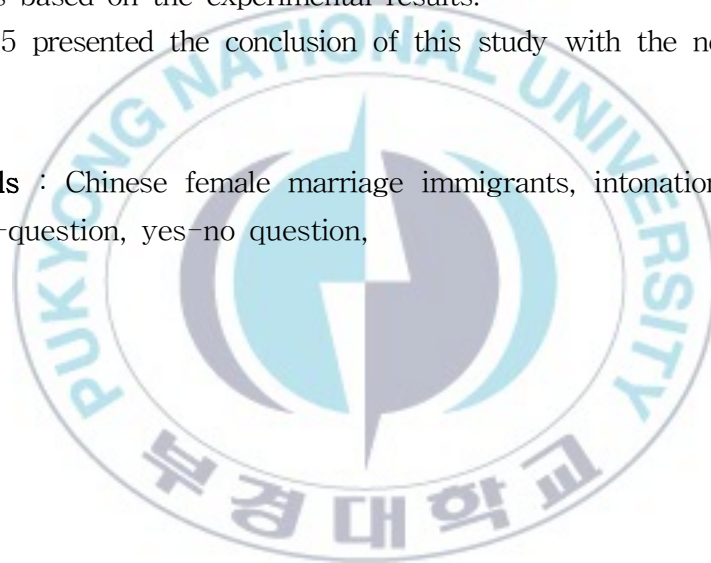
Chapter 2 examined the general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accent, compared the features of dialect of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Gyeongsang, and Mandarin.

Chapter 3 introduced a specific method for the experiment to reveal the feature of intonation of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and Gyeongsang dialect shown in interrogative sentence used by Chinese women married immigrants lived in Busan. Phonetic analysis experiments were performed.

Chapter 4 analyzed the accent realization aspects of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and Gyeongsang dialect of Chinese women married immigrants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Chapter 5 present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ith the next research subject.

Key words :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tonation, boundary tones, wh-question, yes-no question,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로 발화할 때 의문문 억양 특히 문말 억양의 실현 양상이 어떤지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경상도 방언 억양의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발음을 하려면 분절음의 변별적 산출 및 지각, 음운 규칙의 올바른 적용이 중요하다¹⁾. 하지만 초분절음소의 하나로 억양은 발음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²⁾. 외국인 학습자가 분절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더라도 정확한 억양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청자가 그 억양이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다³⁾.

- 1) 오재혁(2014)는 분절음을 잘못 산출하면 정확한 단어를 이룰 수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억양 없이 한 음절 한 음절을 또박 또박 발음하더라도 화자가 의도하는 단어를 산출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 2) Pike(1945: 107)는 분명한 억양을 구사하는 외국인의 말이 개별 음가는 정확하고 억양이 부정확한 사람의 말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하였다.
- 3) 구희산(1989)는 억양이 정확하면 분절음의 발음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억양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언어마다 갖고 있는 보편적이 억양 규칙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분절음을 정확하게 발음한다고 할지라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중에 일반 목적 학습자들이 제일 많고 일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도 많이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밝힌 2013년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1,445,103명이고 결혼이민자의 수가 148,498명이 있다고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사는 지역을 살펴보면 경인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 호남, 충청, 기타 지역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상당히 존재하다⁴⁾.

외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원어민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의 수준에 이르는 것일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한국 사회에서 오래 생활하는 집단이다. 다른 목적 학습자들보다 한국어의 수준이 모어 화자에 가장 가까운 구사력을 가져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를 살펴보면 표준어 지역⁵⁾뿐만 아니라 방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상당히 존재하다. 방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표준어만을 공부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족이나 이웃들이 다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어보다 방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⁶⁾.

그렇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그 지방의 방언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일까? 그들이 발화한 방언이 표준어보다 더 정확한가?

정명숙·조위수(2007)에서는 한국어 학습하는 외국인의 한국어 억양이 학습 지역의 방언 억양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4)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5)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실생활에서 표준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 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정한다. (최진희 2011)

6) 김선정(2006)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표준어에 비해 지역어에 익숙한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화 자료와 서울 지역의 표준어 화자와 부산 방언 화자의 억양을 비교 분석하였다. 부산 지역 학습자들이 서울 지역 학습자들과 달리 일부 어휘 및 어절에서 부산 방언의 억양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일반 목적 학습자들보다 방언을 접촉하는 시간이 길고 표준어 발화할 때 방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가?



1.2 선행 연구

선행 연구는 한국어 억양에 관한 연구와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어의 억양에 관한 연구는 오미라·이해영(1994), 정명숙(1998, 2002, 2003), 김수현(2010), 황현숙(2004, 2005, 2006), 박해연(2002, 2007)등을 들 수 있다.

오미라·이해영(1994)에서는 억양의 기능을 문법적 기능과 화용적 기능으로 분리하고 동일한 형태가 억양에 따라 의미를 달리 실현할 수 있는 여러 예를 억양 곡선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억양 및 억양 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몇 가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억양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유일한 입력원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외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정명숙(2002)에서는 Jun(1993)의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한국어 억양의 기본 유형을 설정하였다. 한국어 강세구의 억양은 기본적으로 LHLH(강세구의 첫 음절의 초성이 격음, 경음, 마찰음일 경우에는 HHLH) 유형으로 실현되고 억양구의 경계성조 부분에서 실현되는 억양은 L%, H%, LH%, HL%의 네 가지를 기본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억양 오류를 살펴보기 위해 정명숙(2003)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하여 억양 오류 양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황현숙(2004)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억양을 발화할 때 자신의 모국어 억양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류가 발생한다는 가정 아래 두 가지 의문문 중심으로 실험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억양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억양적 요소, 즉 단어 강세, 성조, 악센트구의 억양 유형, 문말 억양의 특징 등에 일부 장기간 한국에 체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국어의 간섭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급과 중급 학습자 대상만 실험하였고 오래된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가 억양 실현 양상이 어떤지 논의하지 못하였다.

박해연(2007)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문문의 문말 억양을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문문을 발화할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문장의 전체나 문장 끝을 보통 수평조로 발음하는데 한국어의 의문문은 상승조로 발음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마지막 음절에서만 급격히 억양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험자 인수가 작아서 한국어 수준이 어떤지 몰랐기에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어 억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방언 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방언 교육에 관한 연구는 김선정(2006, 2007), 장미영(2006), 안주호(2007), 이기갑(2008), 이은경(2008), 이영미(2009), 이은선(2012), 고상미(2013)가 있다.

김선정(2006, 2007)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실제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표준어보다는 방언에 대해 더 익숙하다고 하였다. 장미영(2006), 안주호(2007)에서는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수도권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표준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하였고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방언에 노출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였다.

이기갑(2008)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방언 교육이 필요하며 중급 이상의 한국어 지식이 습득된

이후에 방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하지만 억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한다.

이은경(2008)에서는 초급 때부터 방언을 배우면 표준어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급의 단원 구성에 방언을 포함 시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녹취한 내용이 주로 음식 만들기에 집중되어 있어 국한성이 많다.

이영미(2009)에서는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 거주하며 한국어 학습하는 다문화가정 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한국어 어휘 교육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 연구이다. 표준어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방언으로 인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고 하고 방언 교육을 위한 교재나 교육 방안의 연구들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 방안까지 제시하지만 실용 단계에서의 검증을 거치지 못하여 교육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고상미(2013)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또 하나의 언어인 방언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 실태를 살펴본바 방언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언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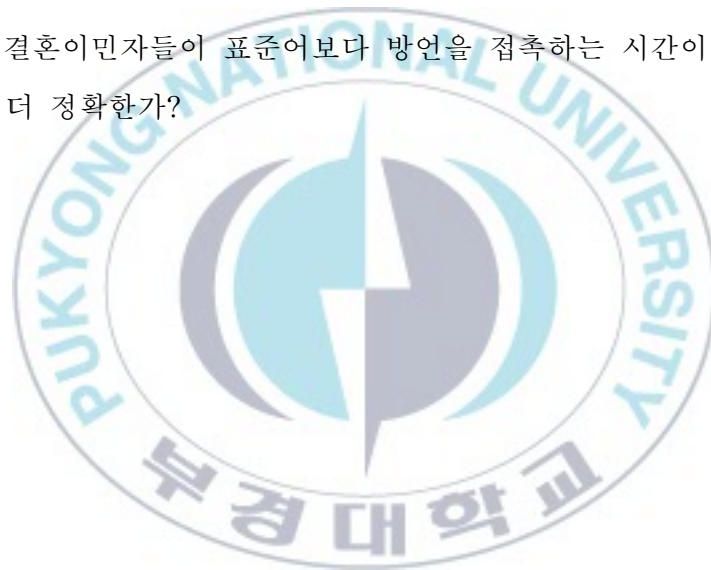
위 여성 결혼이민자의 방언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들이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억양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고 알 수 있다.

이은선(2012)에서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통한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평서문과 의문문 억양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억양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교육 현장에서 실험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국어 평서문과 의문문의 발화를 모아 화자와 비교를 통해 억양 실현 양상을 연구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방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표준어와 방언을 발화할 때 억양 실현 양상은 어떤가?
- 2)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표준어를 발화할 때 그 지역 방언 억양의 영향을 받는가?
- 3)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표준어보다 방언을 접촉하는 시간이 더 길고 방언 발화가 더 정확한가?



1.3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서울 표준어와 경상도 방언의 반말 의문문 억양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 표준어 화자와 경상도 방언 화자 각 3 명씩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 두 가지 실험 문장을 녹음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의 억양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발화를 녹음하여 소리의 기본적인 특징인 발화의 피치(pitch)를 측정한다.

이 논문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 문제 제기를 통해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관련 선행 연구를 찾아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억양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표준어 억양, 경상도 방언 억양 그리고 중국어 억양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의 의문문에 나타난 억양의 특성을 밝히는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의 억양 실현 양상을 밝힌다.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과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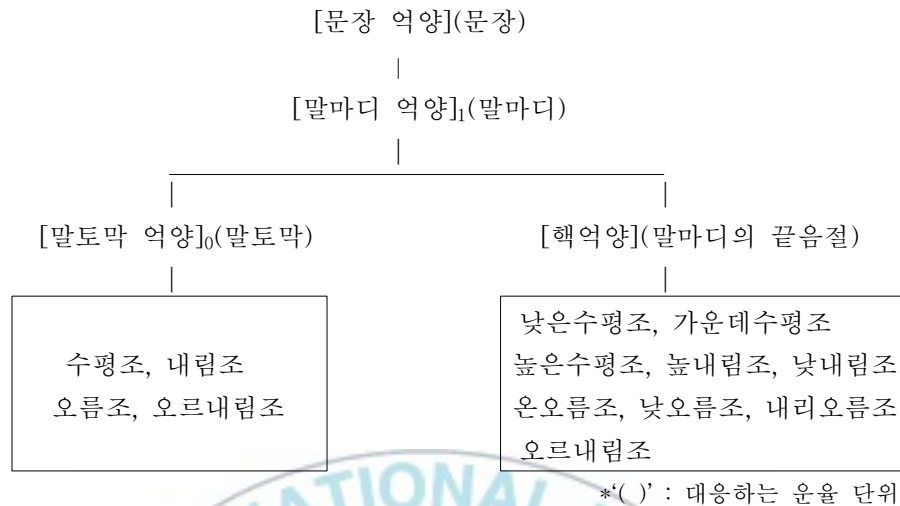
Ⅱ.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 억양의 특징

한국어의 억양에 관한 논의는 이호영(1996), 허웅(2008), 신지영·차재은(2011), 강옥미(2011)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호영(1996)에서는 억양은 문장에 얹히는 높이 곡선을 정의하였다. 문장의 전체나 일부에 얹혀서 특정한 억양 의미를 전달하는 억양형을 억양 패턴(intonation pattern)이라 하고 억양의 단위를 말토막과 말마디로 설정하였다. 즉 문장은 하나 이상의 말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말마디는 하나 이상의 말토막으로 발화된다⁷⁾.

7)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219-222쪽 참조.



[그림1] 이호영(1996)에서 제시한 한국어 억양 체계

말토막은 의미 및 정보의 단위이면서 동시에 말토막 억양이라는 억양 유형이 없으므로 억양 단위이기도 하다. 말토막 억양은 제한된 화자의 감정과 태도, 말의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말토막 억양은 오름조(rising), 수평조(level), 내림조(falling), 오르내림조(rise-falling)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

① 오름조(Rising): 첫 번째 말토막에 얹힌 억양 패턴이며 말토막의 끝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들)은 같은 높이로 발음되고 끝 음절은 나머지 음절(들)보다 더 높게 발음된다. 말토막이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음절이 오름조로 발음된다. 이 말토막 억양은 친근한 발화에서 자주 사용되며,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는 얹히지 않는다.

② 수평조(Level): 말토막의 모든 음절이 같은 높이로 발음된다. 이 말토막

8)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224-226쪽 참조.

억양은 주로 사무적인 발화에서 사용되며,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 얹힐 때에는 냉정한, 혹은 강조하는 태도가 전달한다.

③ 내림조(Falling): 말토막의 마지막 음절이 가장 낮게 발음되고, 나머지 음절들은 같은 높이로 발음되거나 차례로 앞 음절보다 조금씩 낮은 높이로 발음 된다. 이 말토막 억양은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 주로 얹히며, 말마디 내부의 말토막에 얹히기도 한다.

④ 오르내림조(Rise-Falling): 말토막의 두 번째 음절이 첫 음절보다 높게 발음되고 나머지 음절들은 차례로 낮게 발음된다. 이 말토막 억양은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도 얹히고, 말마디 내부의 말토막에도 얹힌다. 그러나 두 개의 오르내림조가 연이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국어에서 말마디 억양이 전달하는 억양 의미의 대부분은 말마디의 마지막 음절에 얹히는 억양 패턴에 의해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말마디에는 말마디 억양 패턴이 없히고, 말마디의 마지막 음절에 얹히는 억양 패턴을 핵억양(nuclear tone)라고 한다. 한국의 핵억양은 ‘낮은수평조, 가운데수평조, 높은수평조, 높내림조, 낮내림조, 온오름조, 낮오름조, 내리오름조, 오르내림조’로 분류하여 총 9개가 있다⁹⁾.

① 낮은수평조(Low Level)는 화자의 음역에서 가장 낮은 높이로 발음되는데 이 핵억양이 얹히는 음절은 앞 음절보다 조금 더 낮게 발음된다.

② 가운데수평조(Mid Level)는 음역의 가운데 높이로 발음되고 이 핵억양이 얹히는 음절은 앞 음절보다 더 높게 발음된다.

③ 높은수평조(High Level)는 화자의 음역에서 가장 높은 높이로 발음된다. 이 핵억양이 얹히는 음절은 앞 음절보다 훨씬 더 높게 발음된다.

④ 낮내림조(Low Fall)는 음역의 가운데 높이에서 시작해서 가장 낮은 높이

9)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222-224쪽 참조.

로 끝난다. 이 핵억양의 시작부분은 앞 음절보다 더 높게 발음된다.

⑤ 높내림조(High Fall)는 음역의 높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높이로 끝난다. 이 핵억양의 시작부분은 앞 음절보다 훨씬 더 높게 발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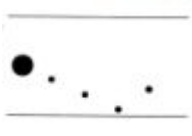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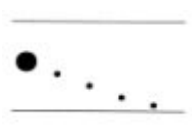
⑥ 온오름조(Fall Rise)는 음역의 가장 낮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높이로 끝난다. 이 핵억양의 시작부분은 앞 음절보다 약간 낮은 높이로 발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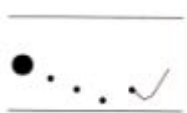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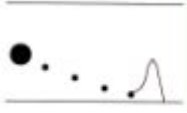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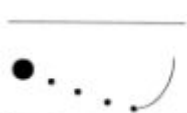
⑦ 낮오름조(Low Rise)는 음역의 가장 낮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높이로 끝난다. 이 핵억양의 시작부분은 앞 음절보다 약간 낮은 높이로 발음된다.

⑧ 내리오름조(Fall-Rise)는 음역의 가운데 높이에서 시작해서 조금 낮아졌다가 음역의 가장 높은 높이로 끝난다. 이 핵억양 시작부분은 앞 음절보다 더 높은 높이로 발음된다.

⑨ 오르내림조(Rise-Fall)는 음역의 낮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조금 높아졌다가 음역의 가장 낮은 높이로 끝난다. 이 핵억양의 시작부분은 앞 음절보다 약간 더 낮은 높이로 발음된다.

<표1> 한국어 핵억양 분류표(이호영 1996)

핵억양	음성학적 표시	억양에 얹힌 감정이나 태도
낮은수평조		✓ 평서문: 사무적으로 말할 때, 정중한 사과 ✓ 단정적인, 냉정한 태도 ✓ 의문사 의문문: 일방적인 질문, 단순질문 ✓ 수사의문문: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 ✓ 명령문: 권위 있게 명령 ✓ 청유문: 제의
가운데수평조		✓ 평서문: 겸손한태도, 통명스러운 태도 ✓ 의문사의문문: 통명스럽거나 조심스럽게 질문 ✓ 의문사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부정사로 쓰일 때 ✓ 선택의문문의 앞 말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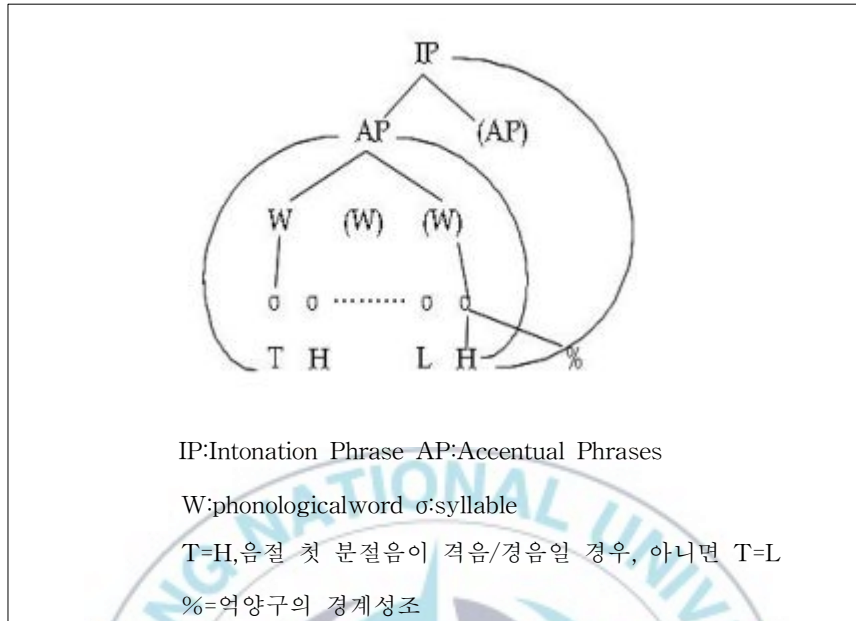
낮오름조		✓ 평서문: 달래듯이 말할 때,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확인 시킬 때 ✓ 명령문: 달래듯이 부탁, 권유 ✓ 의문문: 자문, 권위있게 질문 ✓ 의문사의문문: 관심과 걱정을 표시, 자문 ✓ 청유문: 달래듯이 제의
내리오름조		✓ 평서문: 화난, 달래듯이 말할 때, 가볍게 사과 ✓ 의문사의문문: 관심과 걱정을 표시, 자문 ✓ 의문문: 자문 ✓ 명령문: 달래듯이 부탁, 권유 ✓ 청유문: 달래듯이 제의
높은수평조		✓ 예/아니오 의문문: 단순질문, 확인질문(화자가 질문의 답을 확신하지 못할 때) ✓ 의문사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부정사로 쓰일 때 ✓ 흥미 있는, 놀란 감정의 표시
낮내림조		✓ 평서문: 부드럽고 친절할 태도 ✓ 의문문: 확인질문(화자가 질문의 답을 확신) ✓ 선택의문문의 뒤 말마디 ✓ 명령문: 권위 있게 명령 ✓ 청유문: 제의
높내림조		✓ 흥미, 놀란 감정의 표시
오르내림조		✓ 평서문: 짜증, 경멸하는 태도, 나무라는 말투 ✓ 의문사의문문: 짜증내면서 반복적으로 질문 ✓ 수사의문문: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 ✓ 명령문: 권위 있게 명령 ✓ 청유문: 제의
온오름조		✓ 예/아니요 의문문 ✓ 되물음 의문문

이호영(1996)은 영국식 억양 기술 방법으로 한국어 억양 체계에 대해 억양의 모양을 하강조와 상승조 등으로 잘 기술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억양의 의미를 하나의 전체적인 단위로 분석하지만 억양의 각각의 층위를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JUN(2000)은 미국 구조주의 학파의 음성표기체계인 ToBI를¹⁰⁾ 사용하여 억양구 경계성조와 비교했을 때 중간조 높이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억양 구조는 강세구 억양과 억양구 억양으로 나눌 수 있다. 강세구는 하나 이상의 음운단어로 이루어지며 억양구는 하나 이상의 강세구로 이루어진다.



10) ToBI(for Tones and Break Indices)는 영어의 운율을 전사하기 위한 체계로 고안된 것인데 이후 일본어를 전사하기 위한 J-ToBI 와 한국어를 전사하기 위한 K-ToBI가 개발된 상태이다. ToBI는 소리의 파형과 억양 곡선(피치 곡선)에 4개의 층을 나누어 표시된다. 4개의 층이란 단어 층, 성조 층, 운율 단위 표시 층, 기타 층을 한다. 단어 층에서는 발화된 문장의 단어를 기술하고 있으며 성조 층에는 주어진 발화가 어떤 피치악센트와 가장자리 성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운율 단위 표시 층에서는 주어진 발화가 어떠한 운율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끝으로 기침이나 소음 따위의 정보를 기술하는 기타 정보 층이 있다. H나 L의 두 성조만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구별 부호를 사용하여 단어 악센트(pitch accent)는 ‘*’, 강세구(accentual phrase)의 구악센트(phrase accent)는 ‘-’, 억양구(intonational phrase)의 경계성조(boundary tone)는 ‘%’로 표시한다. (정명숙 1998)



[그림2] 한국어 운율 단위의 계층 구조(JUN,2000)¹¹⁾

Jun(2000)에서는 강세구와 억양구를 억양의 단위로 설정하였고, 강세구는 THLH라는 운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T는 강세구의 첫 번째 분절음이 격음, 경음, 마찰음이면 H(고조)로 나타나고, 그 이외의 음은 L(저조)로 나타난다. 한편 억양구의 성조는 마지막 음절부분에서 실현되는 경계 성조에 의해 결정된다.

국어의 억양은 문법적인 기능과 화용적인 기능, 감정 및 태도에 전달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미 억양을 이호영(1996)에서는 핵억양으로, Jun(1993, 1996, 2000)에서는 경계성조로 정의하였다.

Jun(2000)에서 억양구는 억양구 마지막 음절에 의해 실현되는 경계성조에 의해 표시되는데, 억양구 경계성조는 문장 유형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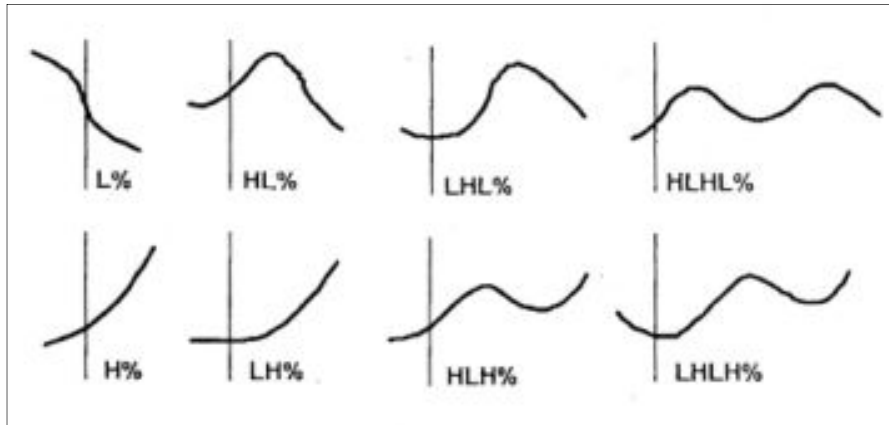
11) 안병섭(2010), 『한국어 운율과 음운론』, 69쪽 재인용.

라 다양한 화용적의미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억양구 경계성조는 억양구 마지막 음절 초성에서 시작되는 F0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9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표2> Jun(2000)억양구 경계성조 유형이 실현되는 발화의 예¹²⁾

IPtones	억양구 경계 성조의 의미
L%	사실의 진술, 낭독체에서의 평서문
H%	정보요구(예-아니오 의문문)하는 경우
LH%	의문문, 발화의 계속, 설명적인 종결이나 성가심, 불쾌함, 불신
HL%	평서문, 의문사의문문, 뉴스 방송 등
LHL%	평서문-설득, 주장 확인, 화가 나 있거나 짜증 표시
HLH%	화자가 확신을 가질 때, 청자의 동의를 기대할 경우
LHLH%	LH%의 강조 의미로 화남, 짜증이나 불신
HLHL%	HL%의 강조 의미로 의견을 확신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사용 LHL%의 강조 의미로 청자를 조르거나 설득 의미 전달
LHLHL%	LHL%의 의미와 유사하지만 화났음을 보다 더 강하게 표현

12) 안병섭(2010), 『한국어 운율과 음운론』, 72쪽 참조.



[그림3] 억양구 경계 성조 유형(JUN, 2000)¹³⁾

Jun(2000)에서는 경계 성조를 9가지 제시했으며 HLHL%와 LHLH%은 언어학적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언어적인 것과 준언어적인 속성을 구분하지 않았고, 사용 언어를 분석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3) 안병섭(2010), 『한국어 운율과 음운론』, 71쪽, 재인용.

2.2 경상도 방언 억양의 특징

경상도 방언이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지역의 방언에 비해 성조를 유지하고 있고 고대-중세시대 언어 특징이 많이 남아있다.

이호영(1996)에 따르면, 경상도 방언은 표준어와 달리 성조언어으로써 높이에 따라 어휘의미가 구별되는 낱말 짝들이 있다고 하였다¹⁴⁾. 예를 들면, ‘말’은 ‘언어’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는 저조(L)로 발음되고, ‘곡식이나 액체의 분량을 헤아리는 단위’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는 중조(M)로 발음되며, ‘타는 말’을 의미할 때는 고조(H)로 발음된다. 같은 낱말이라도 환경에 따라 다른 성조로 실현된다.

(1) 새 : 저조(L)

들새 : 저조(L) + 중조(M)

참새 : 중조(M) + 중조(M), 혹은 고조(H) + 고조(H)

경상도 방언에서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낱말을 이룰 때 낱말의 첫 저조나 중조 다음에서는 모든 기저 성조가 중조로 중화된다.

(2) 들새 : 들(L) + 새(L) → LM

들소 : 들(L) + 소(M) → LM

들꽃 : 들(L) + 꽃(H) → LM

14)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245-257쪽 참조.

(3) 불새 : 불(M) + 새(L) → MM

물소 : 물(M) + 소(M) → MM

불꽃 : 불(M) + 꽃(H) → MM

(4) 잔말 : 잔(H) + 말(L) → HM

꽃밥 : 꽃(H) + 밥(M) → HM

낱말이 둘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을 때 첫 두 음절의 기저 성조가 고조일 때는 첫 음절의 고조가 중조로 바뀌고, 첫 두 음절의 기저 성조가 중조일 때는 두 음절의 성조가 모두 고조로 바뀐다. 그리고 두 음절로 이루어진 낱말의 기저 성조가 ‘중조+중조’일 때는 강조될 때에 한해 ‘고조+고조’로 발음될 수 있다.

(5) 꽃밭 : 꽃(H) + 밭(H) → HH → MH

노을 : HH → MH

(6) 물장난 : 물(M) + 장(M) + 난(M) → MMM → HHM

갈매기 : MMM → HHM

(7) 큰일 : 큰(M) + 일(L) → MM → HH(강조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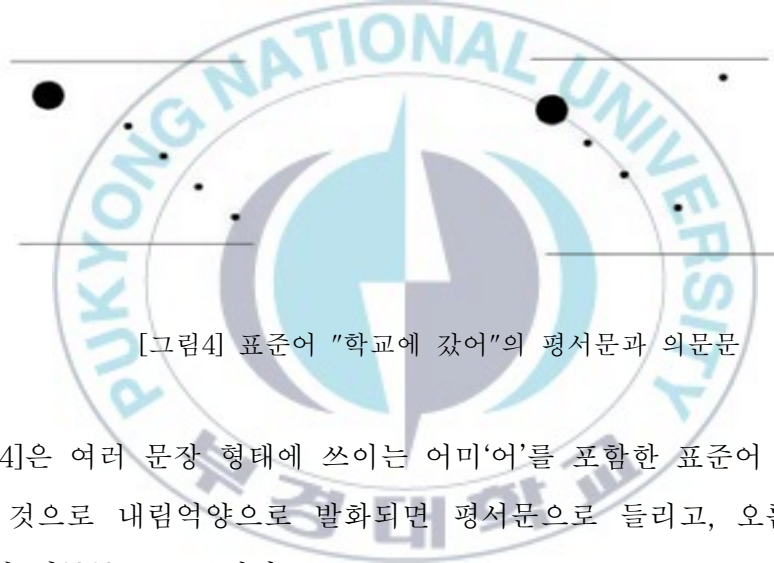
성냥 : MM → HH (강조될 때)

표준어에서는 문장에 얹히는 억양 패턴이 문장 유형, 어미, 문장의 담화 기능, 화자의 감정과 태도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경상도 방언에서는 문장의 각 음절에 얹히는 성조에 의해 결정되며 문장의 마지막 음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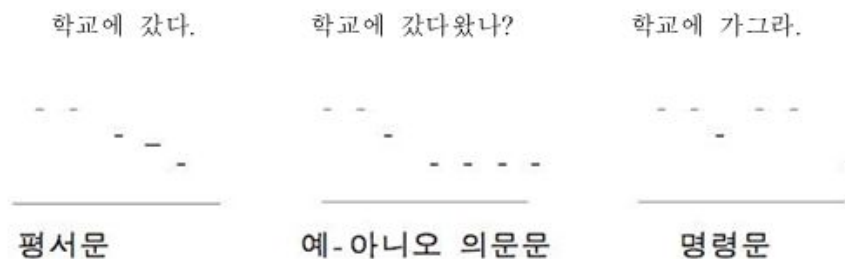
엇히는 높이는 화자의 감정과 태도에 의해 조금씩 변형된다.

표준어 의문문의 경우는 끝을 올리는 경향이 있고, 경상도 방언은 끝 음절 바로 앞 음절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의문문 종결어미 ‘~노/~나’가 쓰이는 곳이 정해져 있다. ‘~노’는 설명의문문의 종결어미로 사용되고 ‘~나’는 판정의문문의 종결어미로 사용된다.

학교에 갔어.(평서문으로 쓰일 경우) 학교에 갔어?(의문문으로 쓰일 경우)



[그림4]은 여러 문장 형태에 쓰이는 어미‘어’를 포함한 표준어 억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림억양으로 발화되면 평서문으로 들리고, 오름억양으로 발화되면 의문문으로 들린다.



[그림5] "학교에 가다"의 경상도 방언 억양

[그림5]은 "학교에 가다"에 따른 경상도 방언 억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준어와 달리 판정의문문도 내림억양으로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상도 방언 성조는 억양의 실현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2.3 중국어 억양의 특징

표준 중국어의 억양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가장 일찍 억양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학자는 趙元任(1933,1959)이다. 그는 중국어에 억양, 즉 어조가 존재하고 또한 어조가 성조를 간접하다는 사실을 논의하였고 "큰 파도 속의 작은 물결"로 중국어의 어조와 성조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큰 파도"는 큰 운율 요소인 어조이고 "작은 물결"은 작은 운율 요소인 성조를 얘기하는 것이다¹⁵⁾.

중국어의 어조는 성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호 작용을 한다. 성조는 문형의 어조에 의하여, 문장의 강세에 의하여, 말토막, 발화 속도 등에 의하여 음가가 변화하거나 재수정이 될 수 있다.

음절이 적은 평서문에서 각 음절은 수평을 유지하거나 약간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장이 길어질 경우, 하강하는 추세가 굉장히 뚜렷하다.

明天來。(míng tiān lái.) → / ↘

(내일 와요.)

明天他們都能來。(míng tiān tā men dōu néng lái.) ↘

(내일 그분들이 다 오실 수 있어요.)

문장 전체가 상승조를 보인다면 의문문의 어조로 변화되는데 상승조가 가장 뚜렷한 부분은 마지막 중음 음절(重音音節)이다.

15) 박해연(2007) "한국어 억양 발음 교육-한·중 의문문 억양 곡선 비교를 중심으로 -" pp.191-195 재인용.

A: 明天他們都能來? (míng tiān tā men dōu néng lái ?) ↗

(내일 그분들이 다 오실 수 있어요?)

B: 都能來。 (dōu néng lái.) ↘

(다 오실 수 있어요.)

판정의문문의 어조는 뚜렷한 상승조를 보이고 있지만 설명의문문은 평서문의 어조와 비슷하여 문장 전체가 하강하는 추세를 보인다.

A: 明天誰能來? (míng tiān shuí néng lái ?) ↘

(내일 어느 분이 오실 수 있어요?)

B: 大家都來。 (dà jiā dōu néng lái.) ↘

(다 오실 수 있어요.)

하나의 평서문이 두 개 이상의 말마디로 구성되었을 경우, 마지막 말마디를 제외한 기타 말마디는 보다 높은 수평조를 보이는 반면에 마지막 말마디는 보다 낮은 하강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明天他們都要來, →只有你不想來。↘

míng tiān tā men dōu yào lái, zhī yǒu nǐ bú xiǎng lái.

(내일 그분들이 다 오실 건데 오로지 단신만 오고 싶지 않아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감정 어조에서는 서로 다른 어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어조를 사용한다.

"明天他們都要來 (míng tiān tā men dōu yào lái) "라는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明天他們都要來。↘ (서술)(내일 그분들이 다 오신데요.)
 明天他們'都要來。↘ (강조)(내일 그분들이 '다 오신데요.)
 明天他們都要來? ↗ (질문)(내일 그분들이 다 오시려고 해요?)
 明天他們都要來? ↑ (놀람)(내일 그분들이 다 오셔야 돼요?)
 明天他們都要來! ↓ (명령)(내일 그분들이 다 오셔야 돼요!)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말 억양을 수평조, 하강조, 상승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유형별 문말 억양¹⁶⁾

· 한국어	· 중국어
평서문: 수평조, 하강조	평서문: 수평조, 하강조
설명의문문: 상승조	설명의문문: 하강조
판정의문문: 상승조	판정의문문: 상승조
청유문: 수평조, 하강조	청유문: 수평조, 하강조
명령문: 수평조, 하강조	명령문: 하강조

이상 문말 억양 양상을 살펴보면, 설명의문문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는 성조 언어이기 때문에 어조는 단순히 문장의 상승이나 하강으로 결론지을 수 없고 반드시 성조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6) 권성미(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억양의 특성 연구-문두 강세구와 문말 억양을 중심으로-", P5. 재인용.

“她唱歌?” (tā chàng gē ?) (그녀가 노래 불러요?)

“你打牌?” (nǐ dǎ pái ?) (당신 트럼프 쳐요?)

“你去哪?” (nǐ qù nǎ ?) (당신 어디 가요?)

“喝飲料?” (hē yǐn liào ?) (음료수 마셔요?)

이상 네 문장 볼 때 어조는 똑 같은 상승 어조지만 마지막 음절의 성조가 각1성{55}, 2성{35}, 3성{214}, 4성{51}으로 성조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음절의 음높이도 다르다. 여기서 어조의 변화는 성조가 원래 갖고 있는 유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속에서 각 음절의 성조는 고유의 음가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형에 그리고 다른 어조에 의해 수정이 되어 성조 값이 원래보다 높게 또는 낮게 들릴 수 있다.

중국어 문장의 어조는 또한 화자의 감정과 태도에 의해서, 즉 화자가 강조하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강세가 어느 음절에 부과되는지에 따라 그 음절의 성조 값이 변화되는 문장의 어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실험

3.1 실험 목적

본 실험의 목적은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표준어와 방언 의문문을 발화하는 과정에서 억양 실현 양상이 어떨지와 문말 억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표준어로 발화하는 과정에서 방언 억양의 영향을 받는지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3.2 실험 대상

실험 대상은 우선 한국어의 표준어 발음과 경상도 방언 발음 제시를 위해 서울 지역 출신 표준어 여성 화자 3명하고 부산 지역 출신 방언 여성 화자 3명을 선정하였고 부산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20명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한국에 온지 3년 이상,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중·고급반¹⁷⁾

17) 최진희(2011)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별 단계. 재인용.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한국어 과정	과정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이수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면제
한국 사회 이해과정							50시간
단계 배정	사전 평가	결혼 이민자	29점 이하	30점 ~ 49점	-	-	50점 ~ 100점
		일반 이민자	29점 이하	30점 ~ 49점	50점 ~ 69점	70점 ~ 89점	90 ~ 100점
	국민	본인의 자율 선택에 따라 언어 또는 한국사회 이해 과정 단계 신청					

에 다니는 결혼이민자들을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어와 방언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고 방언 발화가 가능한 수준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과 중국인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한국인 피험자

번호	나이	출신지	거주지	직업
SK1	20대	서울	서울	회사원
SK2	30대	서울	서울	회사원
SK3	40대	서울	서울	회사원
BK1	20대	부산	부산	대학원생
BK2	30대	부산	부산	대학원생
BK3	40대	부산	부산	대학원생

<표4>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 피험자

번호	연령	출신지	한국어숙달도	한국체류기간
CF1	30대	산둥성	중급	4년
CF2	30대	길림성	고급	5년
CF3	30대	길림성	중급	3년
CF4	50대	길림성	고급	15년
CF5	30대	산둥성	중급	5년
CF6	40대	길림성	고급	6년
CF7	40대	흑룡강성	고급	5년
CF8	30대	길림성	중급	3년
CF9	30대	길림성	중급	4년
CF10	30대	흑룡강성	중급	4년
CF11	30대	광둥성	중급	3년
CF12	40대	요녕성	고급	5년
CF13	40대	길림성	고급	6년
CF14	30대	길림성	중급	3년
CF15	40대	요녕성	중급	4년
CF16	40대	길림성	고급	7년
CF17	30대	길림성	고급	4년
CF18	40대	산둥성	고급	6년
CF19	30대	길림성	중급	3년
CF20	40대	길림성	고급	5년

3.3 실험 문장

본 연구에서 실험하기 위해 선정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실험 문장은 설 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을 포함하여 한국어 표준어 실험 문장과 경상도 방언 실험 문장을 만들었다. 한편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로 발화할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번역된 중국어 실험 문장을 세 명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표준 중국어로 읽게 한 후 억양을 확인하여 실험 결과 분석했을 때 같이 참고 비교하였다.

(1) 한국어 표준어 실험 문장:

1. A: 언제 한국에 왔어?

B: 일 년 전에 왔어.

A: 한국음식 중에서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B: 김치찌개 제일 좋아해.

A: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B: 응, 만들 수 있어.

A: 누구한테 배웠어?

B: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

2. A: 언니야, 내일 시간 있어?

B: 응, 일요일이라서 시간이 있어.

A: 내일 수미랑 같이 등산 가기로 했어. 언니 같이 갈래?

B: 됐어. 나 내일 집에서 쉬고 싶어.

(2) 부산 방언 실험 문장

1. A: 언제 한국에 왔노?

B: 일 년 전에 왔다.

A: 한국음식 중에서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B: 김치찌개 제일 좋아한다.

A: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B: 어, 만들 수 있다.

A: 누구한테 배웠노?

B: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다.

2. A: 언니야, 내일 시간 있나?

B: 어, 일요일이라서 시간이 있다.

A: 내일 수미랑 같이 등산 가기로 했다. 언니 같이 갈래?

B: 됐다. 나 내일 집에서 쉬고 싶다.

(3) 중국어 실험 문장

1. A: 什麼時候來韓國的?

shí me shí hòu lái hán guó de?

B: 一年前來的。

yī nián qián lái de.

A: 韓國食物中最喜歡什麼食物?

hán guó shí wù zhōng zuì xǐ huān shí me shí wù?

B: 最喜歡泡菜湯。

zuì xǐ huān pào cài tāng.

A: 會做泡菜湯嗎?

huì zuò pào cài tāng ma?

B：嗯， 會做。

èn, huì zuò.

A：跟誰學的？

gēn shuí xué de ?

B：跟媽媽學的。

gēn mā mā xué de.

2. A：姐姐，明天有時間嗎？

jiě jiě, míng tiān yǒu shí jiān ma?

B：明天星期天，有時間。

míng tiān xīng qī tiān, yǒu shí jiān.

A：明天要和秀美一起去登山，姐姐一起去嗎？

míng tiān yào hé xiù měi yī qǐ qù dēng shān,

jiě jiě yī qǐ qù ma ?

B：算了， 我明天想在家休息。

suàn le, wǒ míng tiān xiǎng zài jiā xiū xi 。

3.4 실험 절차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표준어와 경상도 방언의 발음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 지역 출신 표준어 화자와 부산 지역 출신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표준어와 방언의 발음을 녹음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어떠한 억양으로 실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문장을 읽게 한 다음에 녹음하는 방식으로 취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발화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하기 전에 여러 번 읽게 한 후 녹음 하였다.

Praat는 네덜란드 Amsterdam 대학의 Paul Boersma가 개발한 음성 분석 프로그램이다. Praat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다운 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컴퓨터용 음성분석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직접 녹음된 음성을 음향 신호로 출력하여 편집, 분석할 수 있는 음성 분석 도구이다. 음성 편집 및 분석에는 Praat 5.3.16를 사용하였다. 분석 시 50~400Hz로 기본 피치 범위를 설정했으며, 실험 참가자가 실험한 억양이 해당 피치 범위를 넘어선 경우 피치 범위를 약간씩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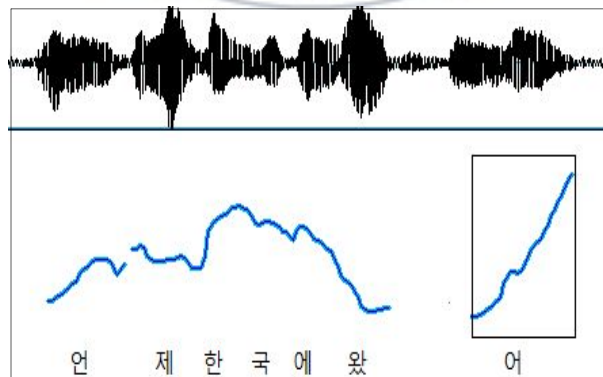
IV. 실험 결과 분석

본 장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발화한 한국어 표준어와 경상도 방언 의문문 억양 곡선 특히 문말 억양 곡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Jun(2000)에서 제시한 9 개의 억양구 경계성조를 기준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억양이 한국인 표준어 화자와 방언 화자의 억양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두 가지 의문문 억양을 실험하기 전에 한국어 표준어와 경상도 방언의 의문문에 대한 표준형을 먼저 제시한다. 표준형을 선정하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과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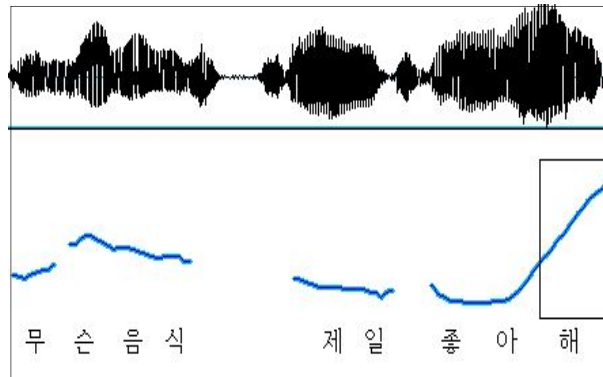
4.1 설명의문문 분석 결과

Q1: 언제 한국에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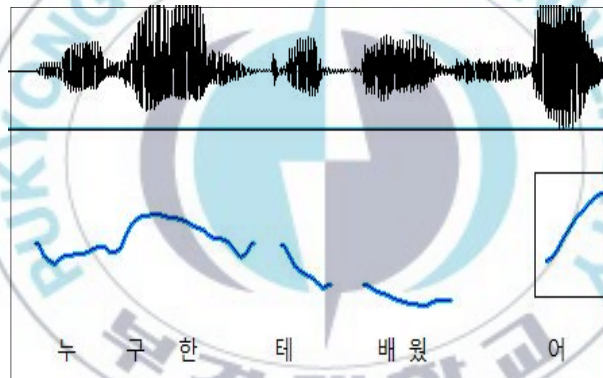
[그림6] Q1:언제 한국에 왔어?(SK1)

Q2: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그림7]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SK1)

Q3: 누구한테 배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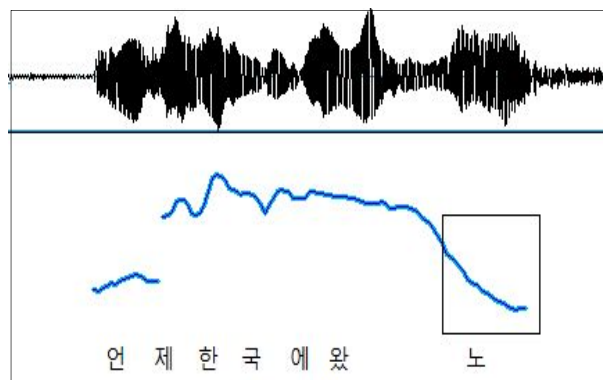
[그림8] 누구한테 배웠어? (SK1)

<표5> 서울 표준어 화자 설명의문문 문말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설명문의문	SK1	SK2	SK3
Q1: 언제 한국에 왔어?	H%	H%	H%
Q2: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H%	H%	H%
Q3: 누구한테 배웠어?	H%	H%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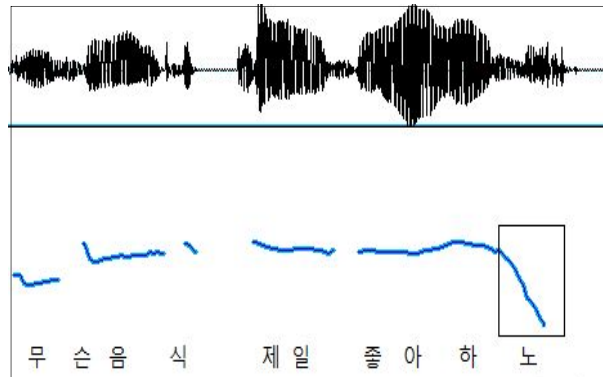
Jun(2000)에서는 한국어 표준어의 강세구 유형은 THLH 유형이라고 하였다. (T는 강세구의 첫 번째 분절음이 격음, 경음, 마찰음이면 고조로 나타나고, 그 이외의 음은 저조로 나타난다). 위의 그림과 표를 살펴보면, 한국인 표준어 화자들이 발화한 설명의문문의 강세구 유형은 Jun(2000)에서 제시한 바와 일치하다. 그리고 세 명의 표준어 화자들이 발화한 억양 곡선은 억양구 경계가 분명하고 실험 문장의 문말 억양 경계성조 전부 다 H% 유형으로 나타났다. 황현숙(2004)에서는 한국어 설명의문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LH% 유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의문문 종결어미가 다르기 때문에 문말 억양도 다르게 실현되었다. 그래서 표준어 반말 설명의문문 문말 억양의 표준형을 H%로 설정하였다.

Q7: 언제 한국에 왔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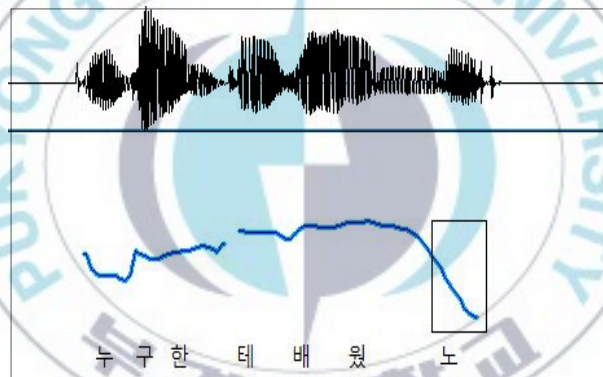
[그림9] 언제 한국에 왔어? (BK1)

Q8: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그림10]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BK1)

Q9: 누구한테 배웠노?



[그림11] 누구한테 배웠노? (BK1)

<표6> 경상도 방언 화자 설명의문문 문말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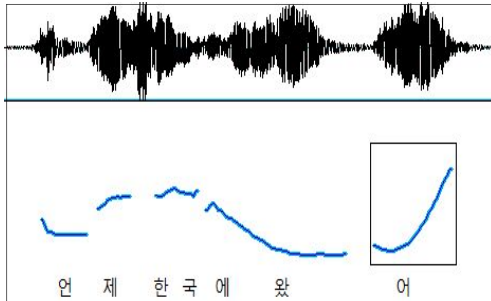
설명문의문	BK1	BK2	BK3
Q7: 언제 한국에 왔노?	L%	L%	L%
Q8: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L%	L%	L%
Q9: 누구한테 배웠노?	L%	L%	L%

청각적으로 경상도 방언 화자들이 서울 표준어 화자보다 발화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장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문말 억양 경계성조는 전부 다 L% 유형으로 실현되었다. 시작 음절을 빼고 중간 음절은 오름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경상도 방언의 문장 끝에 두 번째 음절에서 올라가다가 마지막 음절에서 내려가는 특징도¹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방언 설명의문문 발화할 때 문말 억양의 표준형은 L%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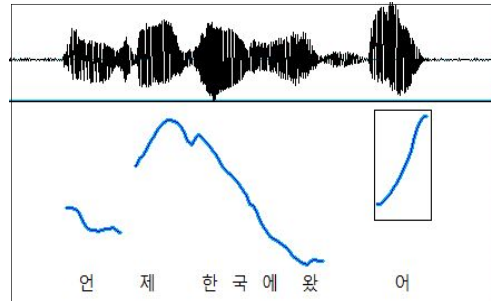


18) 이호영(1996) 표준어 의문문의 경우는 끝을 올리는 경향이 있고, 경상도 방언은 끝 음절 바로 앞 음절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Q1: 언제 한국에 왔어?



[그림6-1] 언제 한국에 왔어? (CF1)



[그림6-2] 언제 한국에 왔어? (CF2)

<표7> "언제 한국에 왔어?"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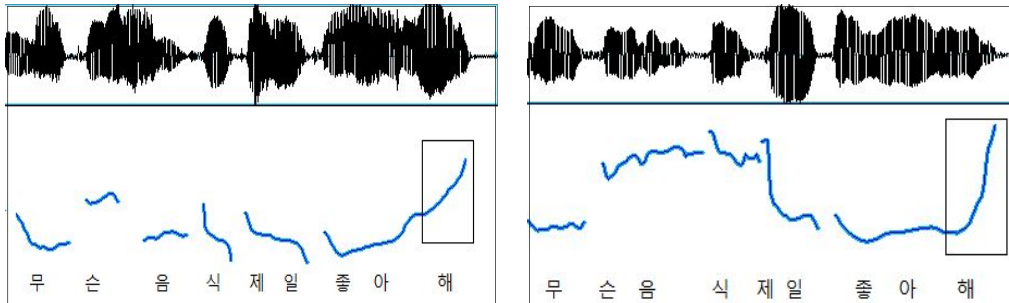
	L%	HL%	LHL%	HLHL%	H%	LH%	HLH%	LHLH%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20%	15%		35%	30%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언제 한국에 왔어?"의 문말 억양을 주로 HL%, LHL%, H%, LH% 유형으로 나타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시작 음절을 뺀 문장 억양은 표준어 화자처럼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억양의 높낮이가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발화한 한국어 억양 곡선은 표준어 화자보다 기복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¹⁹⁾. 그리고 끊어 읽을 때 고급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보통 한국인 표준어 화자처럼 두 번 나누어 발화하고 중급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음절마다 끊어 읽는 경향이 있다. 중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아직 한국어 발화가 유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음절은 각각 분명하고 서로 딱딱 끊어지는 특징이 있는 모국어의 영향도 아직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억양(intonation)은 음절단위에 얹히는 높이(pitch)의 변화로서 주파수로 나타나지만, 개인과 성별에 따라 다른 주파수 대역을 가지므로, 절대적인 높이로써 나타낼 수 없고 상대적인 높이로써 그 차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병운 1997)

Q2: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그림7-1]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CF1) [그림7-2]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C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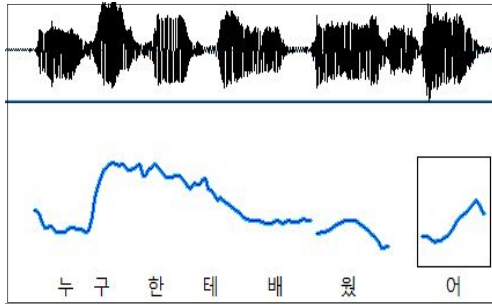
<표8>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L%	HL%	LHL%	HLHL%	H%	LH%	HLH%	LHLH%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10%	5%		7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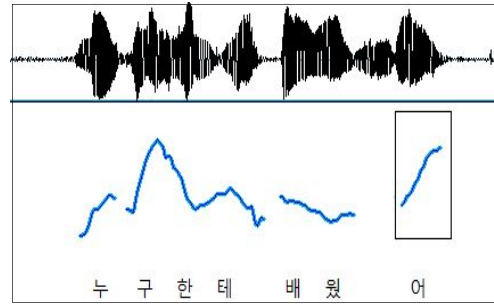
한국 표준어 화자들이 발화한 문장 억양 곡선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실현시킨 문장 억양 곡선은 문말 억양을 빼고 한국 표준어 화자들이 실현시킨 억양 곡선과 거의 일치하다.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이 실험 문장을 끊어 읽을 때 한국인 표준어 화자들이 보통 세 번 나누어 읽는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고급 수준 학습자라도 네 번이나 다섯 번을 나누어 읽는 경우 많다. 문중 억양을 살펴보면 중급 수준 학습자들이 발화한 억양 곡선은 높낮이 기복 변화가 크다.



Q3: 누구한테 배웠어?



[그림8-1] 누구한테 배웠어? (CF1)



[그림8-2] 누구한테 배웠어? (C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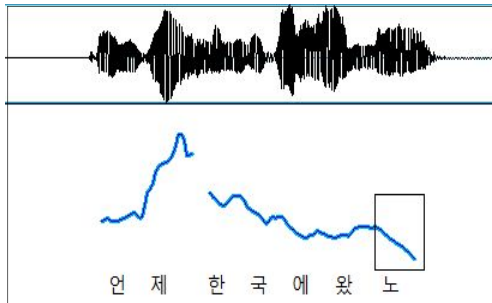
<표9> "누구한테 배웠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L%	HL%	LHL%	HLHL%	H%	LH%	HLH%	LHLH%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10%	5%	25%		35%	1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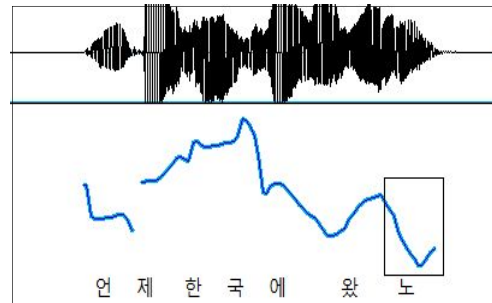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실현시킨 억양 곡선은 시작 음절부터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높낮이 기복 변화가 여전히 크다. 문중 억양 곡선은 한국 표준어 화자처럼 실현되었지만 문말 억양은 다양하게 실현되었다. 특히 L% 유형도 존재하다. L%로 실현시킨 두 명의 억양 곡선을 비교해 보면 한 명의 억양 곡선은 표준어 억양처럼 나타났고 문말 억양만 L% 유형으로 실현시켰다. 다른 한 명의 억양 곡선은 경상도 방언 끝음절의 바로 앞 음절을 올리는 억양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경상도 방언 억양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방언 억양의 양향을 받는다고 확인할 수 있다.



Q7: 언제 한국에 왔노?



[그림9-1] 언제 한국에 왔노? (CF1)



[그림9-2] 언제 한국에 왔노? (C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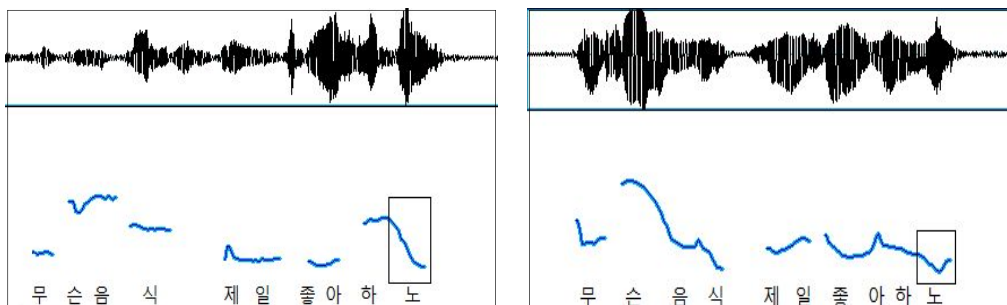
<표10> "언제 한국에 왔노?"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L%	HL%	LHL%	HLHL%	H%	LH%	HLH%	LHLH%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70%	10%				20%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발화한 방언 억양 곡선은 문말 억양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표준어와 달리 복잡하고 규칙성이 없는 억양 양상을 실현시켰다. 경상도 방언에 대해 마지막 음절이 내려간다는 인식이 있어서 시작 음절을 고조로 읽은 후 마지막 음절까지 계속 내려가게 읽는 사람이 있다. 고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방언을 발화할 때 빠르고 끊어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중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표준어처럼 음절마다 끊어 읽는 경향이 있다. 중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실현시킨 문말 앞 억양 곡선은 표준어 억양처럼 나타났고 문말 억양 부분에서는 억양의 정확성이 고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들보다 높았다.



Q8: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그림10-1]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CF1) [그림10-2]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C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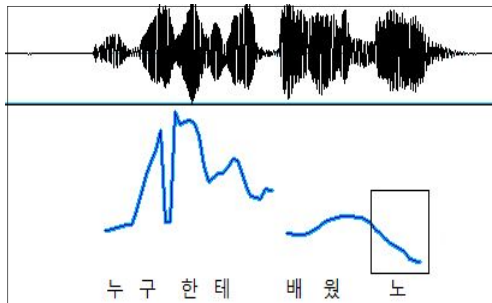
<표11>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표

	L%	HL%	LHL%	HLHL %	H%	LH%	HLH%	LHLH %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70%	5%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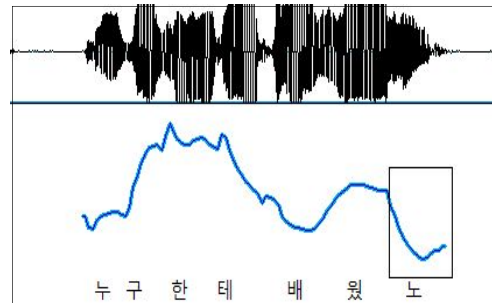
경상도 방언 화자들이 발화한 억양 곡선과 달리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억양 높낮이 기복 변화가 크고 규칙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문말 억양을 L% 유형으로 실현시켰지만 앞 문장을 거의 표준어처럼 발화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H% 유형으로 발화한 사람이 한 명이 있다. 이 사람은 방언 지역에서 방언을 오래 듣고 살았지만 말할 때는 주로 표준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언 발화가 아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9: 누구한테 배웠노?



[그림11-1] 누구한테 배웠노? (CF1)



[그림11-2] 누구한테 배웠노? (CF2)

<표12> "누구한테 배웠노?"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L%	HL%	LHL%	HLHL%	H%	LH%	HLH%	LHLH%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			
CF10					●			
CF11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45%	5%			20%	30%		

위의 그림과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를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발화한 방언 억양 곡선은 높낮이 기복 변화가 크다는 것을 보인다. 실험 문장이 짧아서 끊어 읽을 때 방언 화자처럼 한 번만 나누어 읽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H% 유형으로 발화한 중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4 명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익숙한 문장 표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발화가 가능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는 한국어 표준어와 혼동하기가 쉽다고 생각한다.



<표13> "언제 한국에 왔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SK
L% 계열	L%	0	0
	HL%	20	0
	LHL%	15	0
	HLHL%	0	0
H% 계열	H%	35	100
	LH%	30	0
	HLH%	0	0
	LHLH%	0	0

<표14>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SK
L% 계열	L%	0	0
	HL%	10	0
	LHL%	5	0
	HLHL%	0	0
H% 계열	H%	75	100
	LH%	10	0
	HLH%	0	0
	LHLH%	0	0

<표15> "누구한테 배웠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SK
L% 계열	L%	10	0
	HL%	5	0
	LHL%	25	0
	HLHL%	0	0
H% 계열	H%	35	100
	LH%	15	0
	HLH%	10	0
	LHLH%	0	0

<표16> "언제 한국에 왔노?"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BK
L% 계열	L%	70	100
	HL%	10	0
	LHL%	0	0
	HLHL%	0	0
H% 계열	H%	0	0
	LH%	20	0
	HLH%	0	0
	LHLH%	0	0

<표17>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BK
L% 계열	L%	70	100
	HL%	5	0
	LHL%	0	0
	HLHL%	0	0
H% 계열	H%	5	0
	LH%	20	0
	HLH%	0	0
	LHLH%	0	0

<표18> "누구한테 배웠노?"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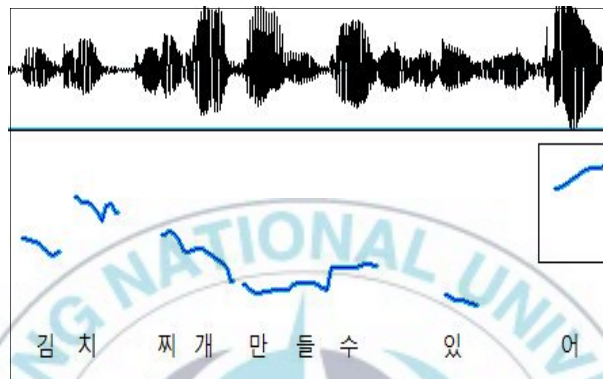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BK
L% 계열	L%	45	100
	HL%	5	0
	LHL%	0	0
	HLHL%	0	0
H% 계열	H%	20	0
	LH%	30	0
	HLH%	0	0
	LHLH%	0	0

설명의문문"Q1: 언제 한국에 왔어?", "Q2: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Q3: 누구한테 배웠어?", "Q7: 언제 한국에 왔노?", "Q8: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노?", "Q9: 누구한테 배웠노?"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표를 살펴 보면,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표준어를 발화할 때 문말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표준어 화자처럼 억양을 실현시킬 수 있지만 억양 곡선은 표준어 화자보다 높낮이 기복 변화가 크다. 문말 억양에 있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하게 실현시켰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경상도 방언을 발화할 때는 한국에서의 거주시간에 따라 문말 억양의 정확성 차이가 있다. 경상도 방언에 대해 문말 억양이 내려간다는 인식이 있지만 문말 앞부분은 여전히 표준어 억양과 같이 실현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발화한 방언 문말 억양의 정확성은 비교적으로 표준어보다 더 높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표준어를 공부하지만 실생활에서 방언을 더 많이 접촉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끊어 읽을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고 한국어를 발화한다. 고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끊어 읽을 때 한국인 화자처럼 발화한다. 문말 차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방언 억양의 양향을 받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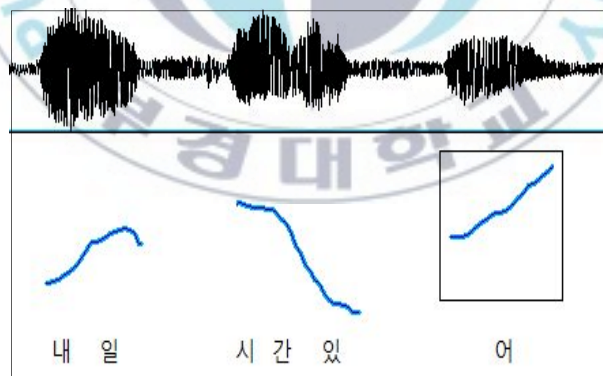
4.2 판정의문문 분석 결과

Q4: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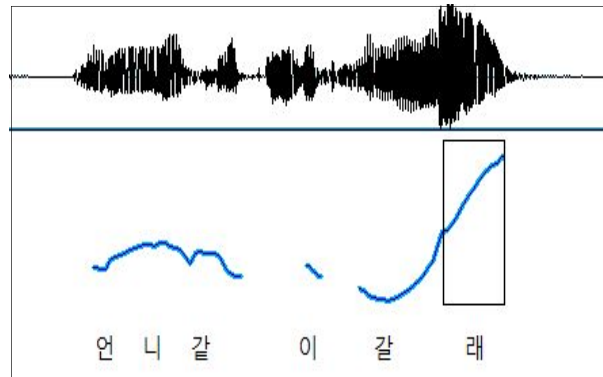
[그림12]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SK1)

Q5: 내일 시간 있어?



[그림13] 언니 내일 시간 있어? (SK1)

Q6: 언니 같이 갈래?



[그림14] 언니 같이 갈래? (S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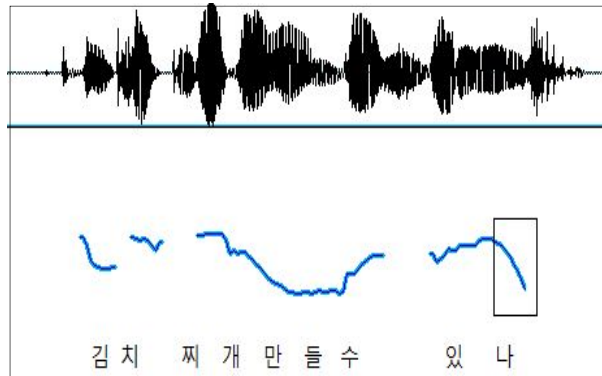
<표19> 서울 표준어 화자 판정의문문 문말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판정의문문	SK1	SK2	SK3
Q4: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H%	H%	H%
Q5: 내일 시간 있어?	H%	H%	H%
Q6: 언니 같이 갈래?	H%	H%	H%

위의 한국인이 실현한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강세구 억양이 Jun(2000)에서 제시한 THLH유형과 일치하고 억양구 경계가 분명하고 전체 억양 곡선은 규칙성 있게 보인다. 황현숙(2004)에서는 한국어 판정의문문의 경우 자주 나타나는 억양은 H% 유형이라고 하였다²⁰⁾. 본고에서도 3 명의 실험자가 전부 다 H% 유형으로 실현되었다. 그래서 표준어 반말 판정의문문을 발화할 때는 문말 억양의 표준형을 H%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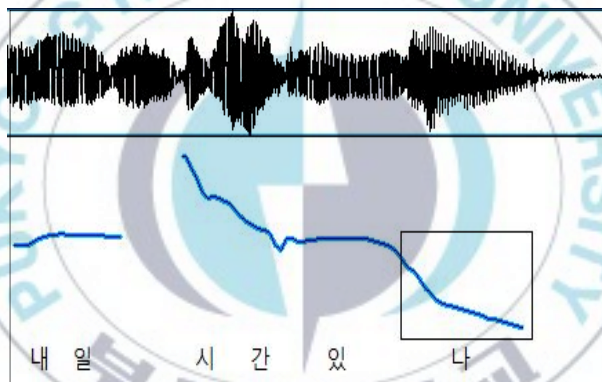
20) 황현숙(2004)에서는 H% 유형은 문장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이 하강하고, 마지막 음절에서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유형을 말한다.

Q10: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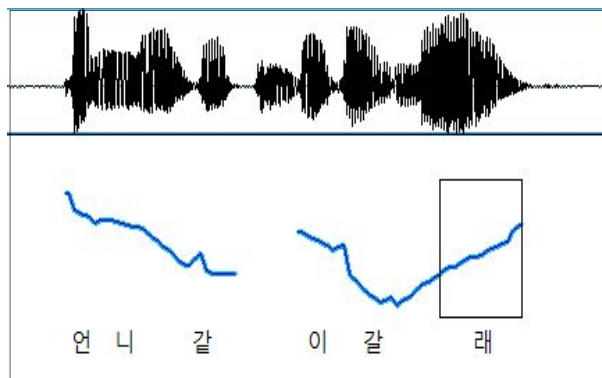
[그림15]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BK1)

Q11: 내일 시간 있나?



[그림16] 내일 시간 있나? (BK1)

Q12: 언니 같이 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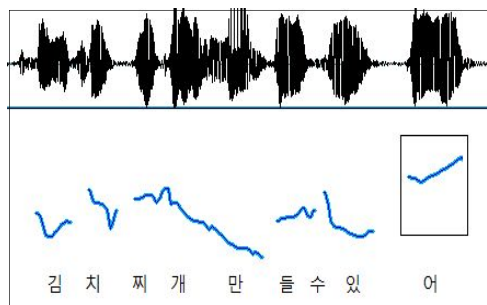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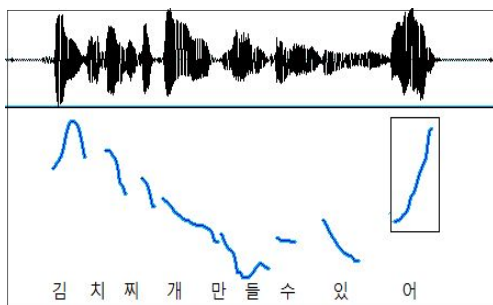
[그림17] 언니 같이 갈래? (BK1)

<표20> 경상도 방언 화자 판정의문문 문말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판정의문문	BK1	BK2	BK3
Q10: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L%	L%	L%
Q11: 내일 시간 있나?	L%	L%	L%
Q12: 언니 같이 갈래?	H%	H%	H%

위의 그림과 표를 살펴보면, 판정의문문의 문말 억양 경계 음조는 세 명 실험자가 두 개의 방언 실험문장을 전부 다 L%로 실현하였다. 여기서 판정의문문 "Q12: 언니 같이 갈래?"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은 종결어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방언 판정의문문을 발화할 때 문말 억양은 L%로 한다.

Q4: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그림12-1]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CF1) [그림12-2]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C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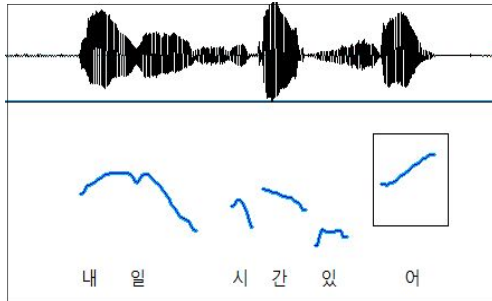
<표21>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L%	HL%	LHL%	HLHL%	H%	LH%	HLH%	LHLH%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10%	15%		4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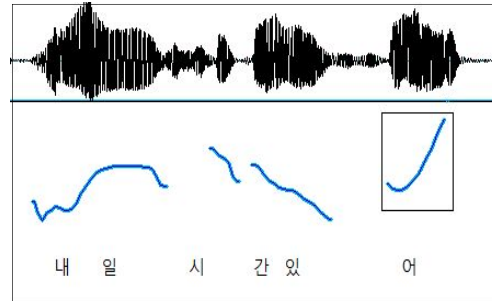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의 문말 억양은 주로 H%, LH%, LHL%, HL% 유형으로 실현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실현한 판정의문문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의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강세구 억양이나 억양구 억양은 제각각이면서 규칙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억양 높낮이 기복 변화가 한국인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끊어 읽을 때, 중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음절마다 끊어 읽는 경향이 강하고 고급 수준 여성 결혼이민자라도 네 번 이상 나누어 읽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



Q5: 내일 시간 있어?



[그림13-1] 내일 시간 있어? (CF1)



[그림13-2] 내일 시간 있어? (C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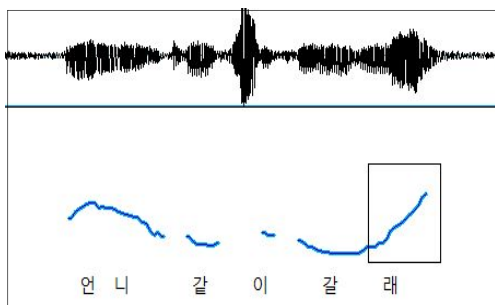
<표22> "내일 시간 있어?"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L%	HL%	LHL%	HLHL%	H%	LH%	HLH%	LHLH%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5%	15%	20%		30%	2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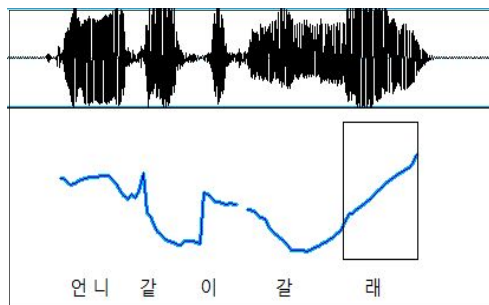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실현한 문장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첫 음절에서 어떤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표준어 화자가 발화한 억양구 유형과 달리 중국어 "明天 (míng tiān)"에 해당하는 강세구 유형과 일치하게 발화하였다. 한국에 온 지 오래 되었지만 한국어를 발화할 때 모국어의 영향을 아직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문장이 짧아서 끊어 읽을 때는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처럼 두 번 나누어 읽었다. 문말 억양에 있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하게 실현시켰다. CF8의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설명의문문 "누구한테 배웠어?"처럼 문말 억양 역시 L%로 실현시켰다.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들보다 경상도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Q6: 언니 같이 갈래?



[그림14-1] 언니 같이 갈래? (CF1)



[그림14-2] 언니 같이 갈래? (C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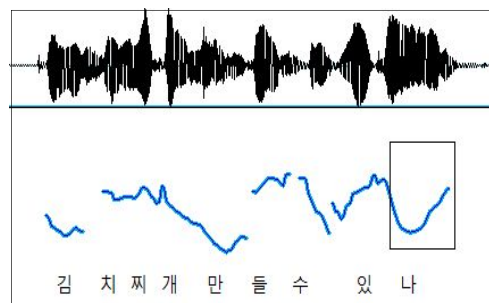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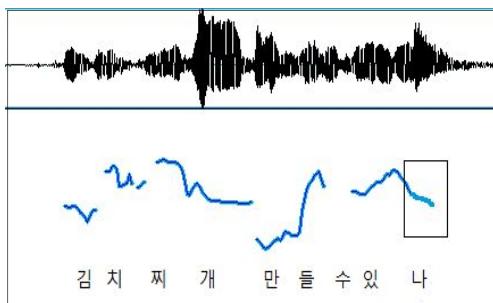
<표23> "언니 같이 갈래?"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결과표

	L%	HL%	LHL%	HLHL%	H%	LH%	HLH%	LHLH%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25%			75%			

위의 그림과 표를 통하여 75%(15명)가 H% 유형으로 실현시켰고 남은 25%(5명)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HL% 유형으로 실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실현한 문말 억양 유형은 한국인 표준어 화자와 일치한다. 여기서 HL% 유형의 전체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경상도 방언의 억양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중국어의 억양 곡선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의문형 종결어미 "嗎 (ma) "의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10: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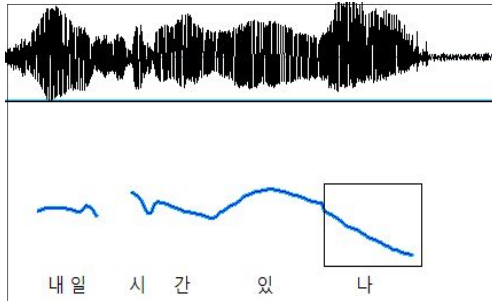
[그림15-1]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CF1) [그림15-2]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CF2)

<표24>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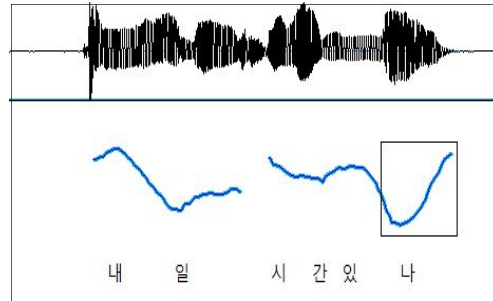
	L%	HL%	LHL%	HLHL %	H%	LH%	HLH%	LHLH %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70%				10%	20%		

판정의문문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와 달리 실험 문장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의 문말 억양 양상의 정확성이 70%에 일렀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실현시킨 억양 곡선에서 억양구 기복 변화가 여전히 크다. 청각적으로 표준어보다 경상도 방언의 발화 속도가 빠르지만 문장 억양 곡선은 다양하게 실현되었다. 어떤 여성 결혼이민자가 문말 억양 부분에서 내려가다가 올라갔고 어떤 여성 결혼이민자는 완전히 올라가는 H% 유형으로 실현시켰다. 한국어 표준어에서 의문형 종결어미 "-나"가 있다.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나'는 주로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쓴다. H%나 LH% 유형으로 실현시킨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아직 경상도 방언에서 나타나는 종결어미 "-나"와 표준어에서 나타나는 종결어미 "-나"에 대해 구분이 안 돼서 다른 억양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Q11: 내일 시간 있나?



[그림16-1] 내일 시간 있나? (CF1)



[그림16-2] 내일 시간 있나? (C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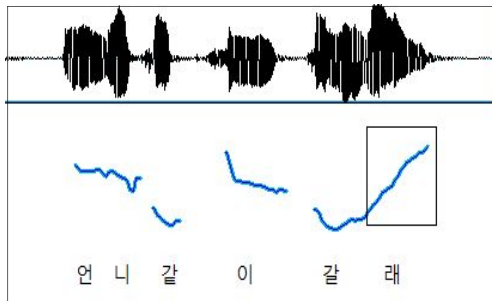
<표25> "내일 시간 있나?"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L%	HL%	LHL%	HLHL%	H%	LH%	HLH%	LHLH%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60%	5%			2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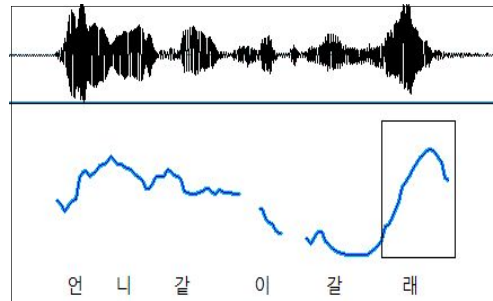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발화한 판정 의문문 "내일 시간 있나"의 억양 곡선에서 경상도 방언 화자들처럼 두 번 나누어 끊어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발화한 문장 억양 곡선은 높낮이 기복 변화가 약간 평온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두 번째 음절에서 갑자기 올라가고 마지막 음절에서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경상도 방언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실험 문장 읽기 전 문말 억양을 경상도 방언 억양으로 실현시켰지만 녹음했을 때 여전히 표준어 억양으로 실현되었다. 머릿속에서는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발화할 때는 잘못 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12: 언니 같이 갈래?



[그림17-1] 언니 같이 갈래? (C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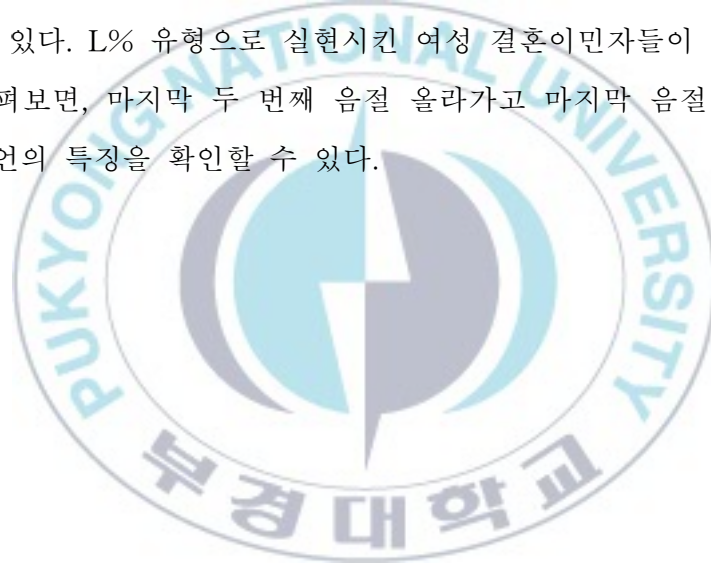


[그림17-2] 언니 같이 갈래? (CF2)

<표26> "언니 같이 갈래?"의 문말 억양 실현 결과표

	L%	HL%	LHL%	HLHL%	H%	LH%	HLH%	LHLH%
CF1					●			
CF2		●						
CF3					●			
CF4		●						
CF5					●			
CF6		●						
CF7		●						
CF8		●						
CF9					●			
CF10					●			
CF11	●							
CF12					●			
CF13							●	
CF14					●			
CF15					●			
CF16	●							
CF17					●			
CF18					●			
CF19	●							
CF20					●			
	15%	25%			55%		5%	

판정의문문 "언니 같이 갈래?"의 억양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문말 억양 H% 유형으로 발화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한국인 화자처럼 억양을 실현시켰다. 하지만 HL% 유형으로 발화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중국어 "嗎 (ma) "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 화자와 다르게 실현시켰다. 한국어 표준어 실험문장에서 문말 억양 H% 유형으로 실현시킨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15 명이 있다. 하지만 경상도 방언 실험문장에서 H% 유형으로 실현시킨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11 명으로 변했다. HLH% 유형으로 실현시킨 여성 결혼이민자가 1 명 있고 L% 유형으로 실현시킨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3 명 있다. L% 유형으로 실현시킨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발화한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마지막 두 번째 음절 올라가고 마지막 음절 내려간다는 경상도 방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27>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SK
L% 계열	L%	0	0
	HL%	10	0
	LHL%	15	0
	HLHL%	0	0
H% 계열	H%	40	100
	LH%	35	0
	HLH%	0	0
	LHLH%	0	0

<표28> "내일 시간 있어?"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SK
L% 계열	L%	5	0
	HL%	15	0
	LHL%	20	0
	HLHL%	0	0
H% 계열	H%	30	100
	LH%	25	0
	HLH%	5	0
	LHLH%	0	0

<표29> "언니 같이 갈래?"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SK
L% 계열	L%	0	0
	HL%	25	0
	LHL%	0	0
	HLHL%	0	0
H% 계열	H%	75	100
	LH%	0	0
	HLH%	0	0
	LHLH%	0	0

<표30>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BK
L% 계열	L%	70	100
	HL%	0	0
	LHL%	0	0
	HLHL%	0	0
H% 계열	H%	10	0
	LH%	20	0
	HLH%	0	0
	LHLH%	0	0

<표31> "내일 시간 있나?"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BK
L% 계열	L%	60	100
	HL%	5	0
	LHL%	0	0
	HLHL%	0	0
H% 계열	H%	20	0
	LH%	15	0
	HLH%	0	0
	LHLH%	0	0

<표32> "언니 같이 갈래?"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

(단위: %)

유형	실현 유형	CF	BK
L% 계열	L%	15	0
	HL%	25	0
	LHL%	0	0
	HLHL%	0	0
H% 계열	H%	55	100
	LH%	0	0
	HLH%	5	0
	LHLH%	0	0

판정의문문"Q4: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Q5: 내일 시간 있어?", "Q6: 언니 같이 갈래?", "Q10: 김치찌개 만들 수 있나?", "Q11: 내일 시간 있나?", "Q12: 언니 같이 갈래?" 문말 억양 실현 양상 대조표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판정의문문을 발화할 때는 설명의문문과 비슷한 억양 실현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발화할 때 모국어 어기조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발화한 경상도 방언 문말 억양의 정확성은 표준어보다 훨씬 높다. 여기서 Q6"언니 같이 갈래?"과 Q12"언니 같이 갈래?"는 같은 실험문장이지만 경상도 방언에서 정확성이 20% 떨어졌다. 표준어와 방언의 종결어미에 대해 아직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경상도 방언 의문문 종결어미"나"와 표준어 의문문 종결어미"나"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V.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로 발화할 때 두 가지 의문문 억양 특히 문말 억양의 실현 양상이 어떤지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방언 억양의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 문제 제기를 통해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다. 그 동안 억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일반 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은 방언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방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 의문문 발화하는 과정에서 억양 실현 양상이 어떤지 실험음성학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 억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상도 방언 억양의 특징과 중국어 억양의 특징도 고찰하였다. 한국어 억양에 대해 주로 이호영(1996)에서 제시한 9가지 핵억양과 Jun(2000)에서 제시한 9가지 억양구 경계성조를 비교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 의문문에 나타난 억양의 특성을 밝히는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실험문장을 만들어 Jun(2000)에서 제시한 9가지 억양구 경계성조를 판단 기준으로 선정하고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은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한국어 표준어

와 방언의 문말 억양 실현 양상을 각각 표로 만들어 고찰하고 비교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방언 지역에서 표준어를 배우지만 방언을 접촉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방언을 안 배워도 스스로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언 발화가 가능하지만 방언의 구체적인 특징과 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 문장 억양 차원에서 한국에서의 거주시간이 짧을수록 모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어절마다 끊어 읽는 경향이 있다. 중국어는 성조가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발화할 때 억양 높낮이 기복 변화가 크다. 문말 억양 차원에서 표준어를 발화할 때 표준어 억양이 나타나고 간혹 중국 모국어 어기조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방언을 발화할 때는 방언의 억양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문말 차원에서만 표준어를 발화하는 과정에서는 방언 억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연구는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실험문장을 대화체로 구성하였지만 낭독을 통해 녹음한 것이므로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발화 억양을 구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한국어 의문문의 여러 가지 유형에서 두 가지 의문문만 선정하여 실험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는 전반적인 의문문 유형과 문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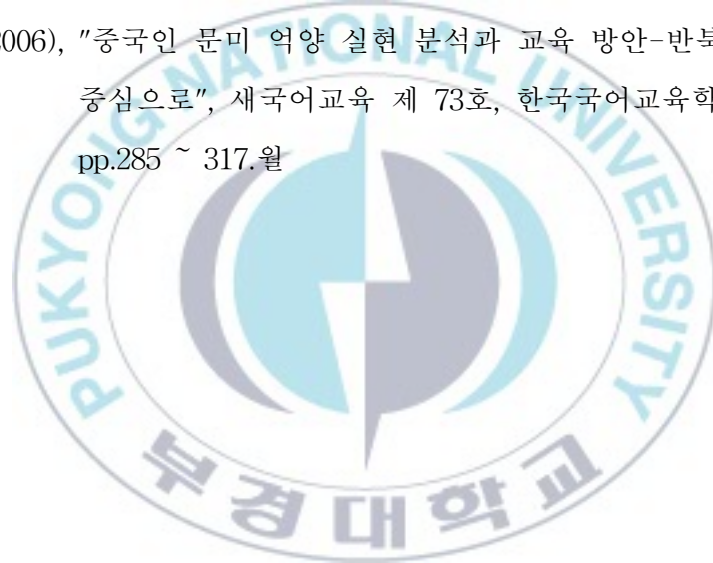
- 강옥미(2011), <한국어 음운론>, 파도·태학사.
- 고미숙(2003), "중국어 억양 연구 고찰", 중국어문학지, 중국어문학회.
- 고상미(2013), "전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언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희산(1989), "시각 피드백과 영어억양 학습".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pp.175-182.
- 구희산(1991), "한국인의 영어억양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한국영어교육학회, 영어 교육 제 42호 pp.89~105.
- 김은정(2009),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연구", 부산대학대학원 석사논문.
- 김미란(2000),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나타난 초점과 문미 억양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무식(2003), "경상도방언의 어절축약의 현상과 억양", 어문학 87, pp. 111-129.
- 김수현(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 연구", 한국문화연구 18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69~87.
- 김선정(2006), "대구·경북지역 이주여성 적응교육 중 한국어 교육 결과 보고서",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 김선정(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423-446.
- 김선철(2005), <국어 억양의 음운론>, 경진문화사.
- 김선정(2012), "대구·경북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역어 사용 양상 연

- 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2006),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자(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방식 연구 : 구어 자유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 김호원(2011), "경상도 방언이 영어 단어의 강세 습득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권성미(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억양의 특성 연구-문두 강세구와 문말 억양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 손남호(2003), "표준 중국어의 경계억양에 관한 연구: 성조와 억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음성학·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학사.
- 신지영 · 차재은(2011), <우리말 소리의 체계: 국어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장미영(200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체감형 한국어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3), pp.231-254.
- 정원수(2005), "한국 경상도 방언의 운율적 특징 - 동경방언의 명사구 운율과 비교 하여-", 우리말글 32.
- 장주연(2012), "한국어 동형다의 종결어미의 억양 패턴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숙(1998), "두 가지 의문문의 문미 억양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제17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명숙(2002), "한국어 억양의 기본 유형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13-4,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25~241.
- 정명숙(2003), "일본인과 중국인의 한국어 억양", 한국어교육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3~247.
- 정명숙·조위수(2010), "학습 지역이 한국어 억양 습득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리 어문 연구 36집, 국어학·한국어 교육, pp.327-355.
- 최진희(2011), "경북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언 교육 연구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 대학교 석사논문.
- 박경래(2010),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 고찰", 우리말 글, 48.
- 박지현(2012),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의 억양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규(2012), "대구·경북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지역어 사용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과 석사논문.
- 박해연(2007), "한국어 억양 발음 교육-한·중 의문문 억양 곡선 비교를 중심으로-", 신청어문 35.
- 안병섭(2010), <한국어 운율과 음운론>, 월인.
- 안주호(2007), "한국어 교육에서의 표준어와 지역 방언-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1, pp.143-165
- 안혜진(2014), "부산방언 화자와 서울말 화자의 영어 억양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라·이해영(199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 한국말교육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09-125.
- 오재혁(2014), "숙달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실현 양상",

-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pp.35-61.
- 이기갑(2009), "농촌 지역의 이주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방언 교육 - 전라남도 지역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글. 280. pp.165-202.
- 이숙향(1984), "한국어 문비 억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길(1988), "억양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근(1989), "한국어 억양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대한음성학회, pp.37-56.
- 이영미(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휘교육방안 :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은경(2007), "전남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방언을 포함한 교재 구성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선(2012), "실험음성학 분석을 통한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교육 방안 연구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병운(1997), "경남 방언의 억양 연구", 우리말 연구 7, pp.79-104.
- 이병운(2002), "방언의 월 끝 억양의 유형", 음성과학 9, pp.49-58.
- 이병운(2004), "표준어 억양 교육 연구", 우리말학회, pp.133~152.
- 이호영(1991), "한국어의 억양 체계", 언어학 13호, 한국언어학회.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 이호영(1993), "서울 방언과 경상도 방언의 운율유형론", 언어학 15, pp.353-380.
- 이현복(2011), <한국어 발음의 이론과 실용>, 한국학술정보.

- 허 응 (2008), <국어 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 · 어제->, 샘문화사.
- 호 양 (2011),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한국어권 · 중국어권 화자 위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현숙(2004),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실태 연구-두 가지 의문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1-1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61~182.
- 황현숙(2005), "중국인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현숙(2006), "중국인 문미 억양 실현 분석과 교육 방안-반복의문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 7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285 ~ 317.월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로 발화할 때 의문문 억양 특히 문말 억양의 실현 양상이 어떤지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경상도 방언 억양의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원어민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수준에 이르는 것일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다른 목적 학습자들보다 한국어의 수준이 모어 화자에 가장 가까운 구사력을 가져야 하는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표준어와 경상도 방언의 반말 의문문 억양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 표준어 화자와 경상도 방언 화자 각 3 명씩 실험 문장을 녹음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의 억양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발화를 녹음하여 소리의 기본적인 특징인 발화의 피치(pitch)를 측정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문제 제기를 통해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다. 제2장에서는 억양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표준어 억양, 경상도 방언 억양 그리고 중국어 억양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의 의문문에 나타난 억양의 특성을 밝히는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의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의 억양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과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